심각한 소련의 석유감산

세계 최대의 산유량을 자랑하고 있는 소련의 석유산업이 심각한 감산에 직면하고 있다. 이의 원인은 매장량의 고갈이 아닌 관리기구의 혼란등 인위적인 문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억제책에 생산감소 계속되다

소련의 1989년 석유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1천7백만톤 감소해 6억7백만톤으로 떨어졌다. 산유량의 67%를 차지하는 西시베리아에서는 대부분의 신규 중소유전들이 생산목표에 접근하고 있지만, 西시베리아 이외 油田의 감소분을 보충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소련 제2의 산유지대인 우랄·볼가지역에서도 완만한 감산이 계속되고 있다. 또 현재의 5개년계획기간 중에 증산이 기대된 카자흐공화국의 멩기스油田은 개발작업이 대폭 지연되고 있다.

'84 '85년의 연속적 감산에 비해, 이번의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즉, 경제혼란과 조직상의 혼란에 노동자의 근로의욕 저하가 석유생산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개발에 필요한 기자재의 공급도 감소하고 있다.

'89년 8월, 대폭적인 정부의 축소조치에 따라 종래의 석유공업성과 가스공업성이 합병되어 석유·가스공업성이 탄생했다. 그러나 그 이틀후에는 가스공업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국영가스콘체른인 「가스프롬」이 출범함으로써 관리계통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소련의 석유생산감소가 계속된다면 최악의 경우 '95년까지 5억5천만톤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감소의 최대원인은 극단적인 투자부족이 만성화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소련의 재정적자는 누적되어 4천억루블에 이르고 있어, '90년도 중앙으로부터의 기본투자는 42.4% 삭감될 전망이다. 심각한 생활물자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농업·경공업·소비재생산부문에의 투자가 우선됨으로써 소련의 '90년 석유공업투자액은 전년대비 28.3% 감소될 것으로 조사기관은 보고 있다.

한편 석유개발비용도 급상승하고 있다. '81~'85년의 생산증가분의 평균생산비용은 '85년 전량평균생산비용의 약 5배인 톤당 140루블에까지 이르고 있다.

금후 개발지역의 원격화, 철도·도로·송전선 등 증대하는 기초설비건설, 대형유전으로부터 약소유전으로의 개발이행, 개발기자재의 투입량증대 등에 의하여 생산비용은 점점 더 상승하게 될 것이다.

제2의 문제는 노동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규율은 해이해지고 있으며 악화일로의 생활물자부족과 사회불안은 노동의욕을 더욱 더 저하시키고 있다. 횟수를 거듭하는 관리기구의 개편으로 조직은 혼란스럽게 되었고, 기득권익과의 충돌도 당장은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세번째는 페레스트로이카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업의 완전독립채산제로의 이행이 생산감소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91년에 예정된 도매가격의 개정이 진행되면, 국내석유가격이 급상승하고 기업의 완전독립채산제로의 이행을 촉진시키게 된다. 그 반면 기업들은 채산성 없는 유전들은 잘라버리기 때문에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감산에 대처하고 수급압박을 완화시키는 유력한 방법은 절약과 石油에서 他에너지로의 대체일 것이다.

기대할 수 없는 소비량의 감소

소련은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체질을 가지고 있으며, 가정용 메타등 감시시스템이 없어 낭비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기술혁신을 진행시킬 만한 기술도 자금도 없다.

석유로부터의 대체도 어려운 실정이다. 체르노빌사고 이래 원전개발은 수정이 불가피하며, 파업의 빈발로 석탄에도 대체의 여유는 없다. 천연가스의 생산에도 최근 어둠이 깔리고 있다.

이런 사정으로 소련 국내의 석유소비를 감소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따라서 남겨진 방법은 中東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리든가, 서방으로의 수출을 줄이든가, 아니면 동구로의 공급을 줄이든가이다.

소련은 금년 이라크, 리비아, 알제리, 이란으로부터의 석유수입량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것은 무기공여나 경제원조의 형태로 되돌려져, 거의 외화를 지불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만안산유국과의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이란과의 관계개선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도 아제르바이잔공화국의 분쟁에 의하여 순조롭지 못할 전망이다. 中東이 무기지원과 경제지원을 받는 것에도 한계가 있으며 외화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석유수입에는 크게 기대를 걸고 있지 않다.

소련은 서방으로의 수출로 획득한 외화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中東으로부터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있지만 이것에도 한계가 있다. 석유에 의한 외화획득액은 '84년의 166억달러에서 '88년에는 105억달러로 떨어져 약 60억달러가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8년 서방으로의 수출총액의 44%를 石油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에 대체할만한 강력한 외화획득원은 없다. 이러한 상황은 '90년대 중반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여, 계속해서 石油를 수출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있다.

소련의 동구로의 석유수출은 코메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제결속의 수단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동구에로의 석유공급량의 삭감이 눈에 띄게 현저해지고 있다. 동구에로의 석유공급은 기본적으로 루블결제이기 때문에 외화획득에는 연결되고 있지 않다. 소련석유가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동구에로의 석유수출삭감이 금후 가장 취하기 쉬운 정책으로 보여진다.

서방제국은 기술지원을

그 결과 석유자급률이 5% 이하에 머무르고 있는 동구는 부족분을 中東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됨으로써 동구의 외화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국내경제 자립도 한층 곤란해질 것이다.

'90 년대 전반의 석유감산이라는 사태는 소련자신에 있어서도 페레스트로이카 진행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금 소련은 사회불안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소비재부족의 개선과 재정재건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경제의 지주라고도 말할 수 있는 석유산업을 비롯한 중공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간과하고 있다.

서방이 페레스토이카를 지원하게 된다면, 지금이 석유개발부문의 장애가 되고 있는 기술면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호기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부문의 장애가 되고 있었던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 규제를 완화하고, 합병기업의 설립을 추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 〈일본경제신문, 崔鍾鎬 옮김〉

소련의 석유수급

(단위 : 백만톤, %)

				증감률	
	1986	1987	1988	1987/86	1988/87
생산	614.8	624.0	624.0	1.5	0.0
수출	186.3	195.8	205.2	5.1	4.8
서방선진제국	77.9 (41.8)	83.8 (42.8)	97.4 (47.5)	7.6	16.2
코메콘 동구제국	81.1 (43.5)	79.9 (40.8)	77.4 (37.7)	▲ 1.5	▲ 3.1
수입	16.6	16.2	21.8	▲ 2.4	34.6
중동	14.1 (84.9)	13.8 (85.2)	19.4 (89.0)	▲ 2.1	40.6
소비량	445.1	444.6	438.4	▲ 0.1	▲ 1.4

〈자료〉 소련국민경제통계집(1989), 소련외국무역통계집(1989)